

윤석열 정부, 올해 세수 확보 '비상등'

5월까지 국세 세수 결손 18조8천억원 추정 세수평균 주범 '법인세' 작년보다 15조 감소 안도걸 "부자감세 중단...대책 즉각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수 확보에 심각한 수준의 비상등이 켜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원 줄었다. 올해도 세수 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 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년 국세 실적(344조1천억원)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도리어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핑크가 발생한 지난해(46.8%)보다도 5.5%p 낮고 월별 세수 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40.0%)보다는 조금 높지만 세수 핑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p 차이가 벌어져 조기 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 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p 벌어지면 조기 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한다. 세수 감소를 세부별로 보면 세수 핑크의 주범은 법인세다. 실제 5월까지 법인세수는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3조6천억원)

보다 무려 15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세수 결손분(-9조1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 큰 규모다. 법인세 세수 진도율은 36.5%로 지난해(54.3%)보다 17.8%p 급감했다. 역대급 법인세 세수 결손(-23조2천억원)이 발생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41.6%)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유류세와 소득세의 세수 실적 부진에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해 지난해 실적보다 4조5천억원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류세는 8월까지 연장해 2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소득세도 지난해 실적보다 10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5월까지 3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 세수 실

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는 세수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수 재추계 결과치를 국회 기재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초 목표한 세수를 달성하기 위한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상속세·증여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더 확대하면 국가 재정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8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교육청, 14개 시·군 및 9개 공공기관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 잡아라” 전남지역 총력전

道-도교육청-14개 시·군-9개 공공기관·기업 협약 전략 수립·공교육 지원 확대·정주여건 개선 등 협력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기업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교육청, 14개 시·군 및 9개 공공기관·기업과 함께 2차 시범지역 공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참여 시·군은 여수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이다. 참여 공공기관·기업은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GC녹십자, 여수국가산단공정장협의회, 에이치제이디오션리조트 주식회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공사이다. 이날 협약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 14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해 2차 지정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운영 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

전략 수립,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말 1차 시범지역 7개 시·군(목포·나주·광양·강진·영암·무안·신안) 지정에 이어, 전남 모든 시·군에 2차 시범지역에 지정되도록 실무협의체를 운영, 기획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확대하고 유·초·중·고·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권역별 유형화로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안)을 마련, 전남의 특구 지정 필요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라이즈(RISE), 글로벌대학3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등 대한민국 교육혁신 3대 프로젝트의 거점으로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교육 혁신에 앞장서왔다”며 “유아부터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선순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이 실현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말 발표되며 선정된 지역은 신청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3년간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재정기자

민주역사 자원 발굴·활용 방안 모색

광주시, '5·18사적지 활용' 토론회

광주시는 지난 28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민주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민주역사 사건 중심으로 열렸던 정책토론회와 달리 이번 토론회는 광주정신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 등 사적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마련됐다. 역사학자인 신주백 성공회대학교교

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희승 전남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제를 했다. 또 박홍산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와 광주 민주역사 정책자문 전담팀(테스크포스) 위원을 중심으로 주제토론회가 진행됐다. 김희승 교수는 사적지를 '점'과 '선'의 관점에서 '면'과 '권역' 중심으로 시선을 전환해 5·18사적지와 한말의병, 항일운동, 4·19혁명, 6월항쟁 관련 시설 및 장소, 근대 유산과 연계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성강기자

道,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전남도는 30일 “매년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시·군에 ‘언어소통 도우미(통역)’와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급격히 확대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시·군별로 통역이 가능한 언어소통도우미를 지원하고 치료비 문제로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병원 진료를 돕기 위해 근로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한다. 또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숙소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과 농협 등을 위해 기존 마을 내 빈집

과 농협 보유 유휴 시설을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숙소 리모델링 사업’에도 2억원을 지원한다. /양시원기자

민주, 김귀선 목포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8일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경선 결과에 불복, 목포시의회 의장에 출마한 김귀선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간주, 제명 처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김귀선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결과를 각 지역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1일 치러질 목포시의회 의장 선거는 5선의 민주당 조성오 의원과 3선의 무소속 김귀선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